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 과장(02-2110-4501), 고상미 서기관(4557)

「제9차 WTO 각료회의(12.3~6, 인니 발리)」 결과

- 무역원활화, 농업 일부, 개도국 우대 등 3개 부문의 합의문 채택

□ 12.3(화)~12.7(토)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「제9차 WTO 각료회의*」에서 **'발리 패키지'**(DDA 협상의제 중 조기수확 대상 3개 부문) **협상이 최종 타결**되어, ①무역원활화, ②농업, ③개발·최빈개도국 **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**(☞참고)**이 채택**됨

* 159개 WTO 회원국 대표단 및 옵저버 국가, NGO 등 3,200여명 참석
*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(교체수석대표: 최경림 통상차관보, 최석영 주제네바대사) 농식품부, 기재부, 해수부, 관세청, 외교부, 주제네바 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 참석

☞ 12.3일자 보도자료(각료회의 개최 예정) 및 12.4일자 보도참고자료(수석대표 기조연설문) 참조

☞ WTO 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3개국(뉴질랜드, 캐나다, 호주)과의 양자 통상장관 회담 결과는 별도 보도자료 旣 배포(12.3~5일자)

□ **(합의 내용)** 조기수확* 대상으로 협의해온 무역원활화, 농업 일부, 개발/최빈개도국 이슈 등 3개 부문에서 최종 합의문 도출

* (조기수확, early harvest)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,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방식

○ (무역원활화) 통관절차 간소화, 무역규정 공표, 세관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WTO 무역원활화 협정 작성

* 우리는 싱글윈도우(단일서류접수창구), 위험관리,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등 핵심적인 무역원활화 조항을 제안하여 협정문에 반영

○ (농업) DDA 농업협상 의제 중 아래 3개 이슈를 조기수확

- TRQ 관리 개선,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운영과 관련한 보조 한도 초과시 일시적 분쟁 자제, 수출경쟁 관련 정치적 메세지 채택

* 관세 및 보조금 추가감축 등 핵심 이슈는 금번 조기수확 대상에서 제외

○ (개발/최빈개도국) 對개도국 우대/특혜 강화 방안 논의

☞ **상세 내용은 '참고'**

□ **(협상타결 의의)** 금번 협상 타결은 '01년 DDA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던 WTO가 12년 만에 거둔 수확이자 '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로 도출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성과임

○ 조기수확 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DDA 일부 이슈 타결에 성공함으로써 WTO의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*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

* 금번 각료회의 기간을 포함, 농업문제에 관해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간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, WTO의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극적으로 합의 도출

○ 금번 조기수확 성과를 기초로, 잔여 DDA 협상의제 타결을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여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마련*되고,

- WTO 정보기술협정(ITA) 확대 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
* (Post-발리 작업) △무역협상위원회(TNC)가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계획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지시 △발리 패키지에 포함된 성과 중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야(수출경쟁, 개발/최빈개도국)를 우선적으로 작업

□ **(국내적 효과)**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할 경우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, 통관 관련 애로 해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

*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2015.7.31까지 수락을 위해 개방되며, WTO 회원국 2/3가 수락시 무역원활화 협정이 수락회원국에 대해 발효 예정

* (ICC(국제상의)·PIIE(피터슨연구소), 2013)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 및 2,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

* (KIEP, 2011)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로 무역비용 10% 감소시
  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GDP 8.74%, 후생 8.45%, 수출 11.3% 증가 예상

○ 농업 분야의 경우 TRQ 관리 개선 관련하여 개도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고,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, 수출경쟁 등은 우리나라와 큰 이해가 없음

○ 개발·최빈개도국 이슈는 구체적 권리·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합의

□ **(참고: 협상 경과)** 당초 각료회의 이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농업부문 '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' 등 잔여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발리에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,

○ 식량안보 이슈와 관련한 인도/미국간 합의, 50여개의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던 무역원활화 협정(案)에 대한 중재안 합의 등을 거쳐, 예정된 폐막 시간을 넘겨 12.7(토)까지 각료회의를 연장하여 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둠

○ 동 과정에서 사무총장은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타협점(landing zone)을 모색한 사무총장 텍스트를 제출하여 수 차례의 추가협의를 거쳐 수용됨으로써 협상 타결에 큰 기여를 함

□ 아울러, WTO 정규활동과 관련하여, △160번째 회원국으로 예멘의 가입, △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을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 등 6개 각료결정(Ministerial Decision)을 채택함(참고 3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(02-2110-4501~450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'발리 패키지' 3개 부문의 최종 합의문 주요 내용

□ **(무역원활화)** WTO 新무역원활화 협정 채택

① (무역원활화 조치) 통과의 자유(GATT 5조), 수출입 절차·수수료(8조), 무역규정 공표·시행(10조) 등 GATT 관련 규정을 명확화·개선

② (세관협력) 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 등,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

③ (對개도국 특별대우) 협정상의 의무이행 지원을 위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

□ **(농업)** TRQ 관리방안 개선, 개도국 식량안보, 수출보조 자제

* 각료결정 4개(일반서비스, 식량안보 목적 공공 비축, 농업협정 제2조에 정의된 농산물의 TRQ 관리 규정에 관한 양해), 각료선언 1개(수출경쟁)

① 농산물 수입국이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쿼터(TRQ)에 대한 관리 방식 개선(단,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)

② 가뭄 및 홍수 관리 등을 허용보조인 일반서비스 목록에 추가, △개도국이 현재 운영중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조한도 초과시,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적 해결방안 마련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소 자제

③ 농산물 수출보조 감축 등 수출경쟁 조치 관련 각료선언

□ **(개발/최빈개도국)**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,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지원을 위한 우대 패키지 마련

* 각료결정 4개(LDC 특혜 원산지규정, LDC 서비스 웨이버 운영방안, LDC 무관세무쿼터(DFQF) 시장접근, 개도국 우대에 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)

① WTO 협정 및 각료·일반이사회 결정 등에 포함된 모든 개도국 우대규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·운영

② 최빈개도국(LDC) 상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기준 완화 등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 확대, LDC 서비스 부문에 대한 특혜 시장접근 등 협의

참고 2 제9차 각료회의시 '발리 패키지' 채택 경과

□ 12.3(화) 각료회의 개막식 이후, 호베르토 아제베도(Roberto Azevêdo) WTO 사무총장과 기따(Gita Wirjawan) 의장(인니 통상장관, 9차 각료회의 의장)은 발리 패키지 타협안 도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전개해 왔음

○ 대부분의 회원국들은, 금번 발리 각료회의가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기능·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 공감을 표명하면서, 발리 패키지 타결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

○ WTO 사무총장과 인니 대통령·통상장관은, 발리 패키지의 합의는 WTO 다자통상체제의 진전 및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의미하므로, 각국이 신축성을 발휘하여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결집해야 함을 강조

□ 발리 패키지의 균형(무역원활화 vs 농업/개발)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간 이견, 특히 **식량안보 이슈와 관련한 인도와 미국간 대립**으로 **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지속됨**

○ 인도(Sharma 상공부 장관)는 식량안보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였고, 미국·EU 등 선진국은 WTO 보조금 규율의 퇴보를 우려하여 반대

○ 또한, 일부 중남미,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구속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, 선진국은 농업 수출경쟁, 최빈개도국 이슈 등에서 구속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, 이러한 불균형 시정을 지속 요구

○ 동 과정에서 사무총장은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타협점(landing zone)을 모색한 사무총장 텍스트를 12.6(금) 저녁 제출하여 12.7(토)까지 수 차례의 추가협의를 거쳐 수용됨으로써 협상 타결에 성공

참고 3 WTO 일반이사회 정규 활동에 대한 각료 결정

① TRIPS(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) 비위반 및 상황 제소

- TRIP에 관한 분쟁 발생시 GATT 제23조 1(b) 및 1(c)에 따른 비위반 및 상황 제소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 각료결정을 차기 각료회의시까지 연장

② 전자상거래 작업계획

- 전자적 전송물(electronic transmissions)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차기 각료회의시까지 연장

③ 소규모경제(Small Economy) 작업 계획

- 소규모경제 국가들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(Global Value Chains)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작업을 지속

④ 무역을 위한 원조(Aid for Trade)

- 개발도상국,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'무역을 위한 원조(Aid for Trade)'의 지속 필요성 인식

⑤ 무역과 기술이전

-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속

⑥ 예멘의 WTO 신규가입에 관한 결정 채택